

“장밋빛 최상위 법정계획... 재원 조달 관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점검... 1·2차 계획 투자 저조 의원들 “재원 마련 방안은?” 道 “국비 지원 의무화 필요”

제주도가 수립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이 과거 사례처럼 장밋빛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회의에서 나왔다.

18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종합계획 재원이 그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던 점을 지적했다.

종합 계획은 제주지역 발전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금까지 보완과 수정을 거쳐 2차 계획까지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는 연구 용역을 맡겨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 용역진은 3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핵심 사업 후보군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쇼핑아울렛 조성과 자산관

리신타공사, 데이터센터 설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혁신도시, 산림 슬로프단지 조성 등 40개 신규 사업을 올려놨다. 3차 종합계획에 담긴 최종 핵심사업은 용역이 끝나는 오는 5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심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과거 1차 종합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9조2000억원 중 투자된 금액은 6조2000억원으로 실 투자 비율은 67%에 그쳤다. 2차 종합계획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 15조4000억원 중 4600억원만 투자돼 실 투자 비율은 3.0%에 머물렀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과거 투자 실적 사례를 비취볼 때 3차 종합계획도 장밋빛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국비, 지방비만으로는 3차 종합계획을 만들어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 계획도 뒤따라야 한다”



이경용 의원, 강민숙 의원, 강철남 의원.

고 강조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2015년에 발표된 2차 종합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의 60%가 예산 확보가 안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원화봉 지사 재임 기간 투자실적이 미미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계획에 나온)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는 데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마련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제주도 자체 계획이므로 국가가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종합계획에) 국비 지원 의무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이하 JDC)가 수립한 미래전략 용역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있었다. 용역진이 3차 종합계획 핵심사업 후보로 제시한 트랩과 국제수준 미술관·음악당 유치는 JDC 미래전략 용역에도 제시된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은 “JDC 미래전략 용역이 3차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허법률 실장은 “JDC 자체적으로 한 미래전략 용역과 3차 종합계획은 엄연히 다르다”며 “3차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JDC 시행계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드라이브in 꽃구경’ 유채꽃축제 개최

내달 6일부터 가시리 일대 가파도 청보리축제는 취소



서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감염예방 특별관리 아래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를 연다.

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표선면 가시리 일대 유채꽃광장과 녹산로 일대에서 유채꽃축제를 개최해 상춘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유채꽃 개화 및 절정 시기가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많은 인파가 행사장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감염예방 특별관리를 통해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화사한 제주의 봄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녹산로 유채꽃 주

요 파종구간(제주삼농 입구~정석항 공판 1주차장, 약 4km) 도로변 갖길 주·경차 금지 및 감염예방 수칙 내용을 담은 홍보 일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또 안전요원 배치 및 차량 순찰을 통해 ‘드라이브인(in) 꽃구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방역수칙 적극 준수라는 전제하에 지난해와 달리 유채꽃을 बे지 않고 유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가파도 청보리축제는 배편 이용에 따른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귀포시 ‘온라인 시정홍보 채널’ 인기

SNS 이용 양방향 소통 활성화

서귀포시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체 SNS 홍보채널 활성화를 통한 소셜미디어를 강화,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정정보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1년 온라인 시정홍보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말까지 구독자 3만명을 목표로 시는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시 공식 SNS 홍보채널 활성화

▷시민참여 제작 영상콘텐츠 운영 강화 ▷현장·민생 중심의 영상홍보 활성화 ▷공직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능력 강화 ▷시 공식 SNS 홍보채널구독·확산 전개 ▷수어통역 영상 제작의무화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3월초부터 시민참여제작 영상콘텐츠 운영을 강화, 국내 한 포털사이트의 ‘우리동네’ 코너에서 연일 상위에 랭크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월 ‘서귀포에 새로 생긴 약기 무료 대여 도서관’을 필두로 ‘계절이 바뀔을 알리는 전령사! 유채꽃 산책로’ 등의 영상물이 인기몰이 중이다.

백금탁기자

비대면 들불축제 뜻밖 효과 농수산물 2억원 판매 ‘효자’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비대면과 예약제로 치러진 2021 들불축제가 농수산물 판매 등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1 들불축제를 통해 제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잠재고객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들불축제 기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혜향 등 감귤류

와 세척당근, 무 등 농산물 9080건·2억1300만원과 은갈치, 제주굴비, 광어머리 등 수산물 165건·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는 전국에서 총 2만5745명의 시민들이 제주 농·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와함께 들불축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차량을 400대로 제한해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개최되면서 쓰레기가 없는 축제로 진행돼 청정 제주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윤형기자

이윤형기자



“학꽂이가 찾아왔어요” 18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학꽂이 때가 몰려들자 낚시꾼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항 방파제 건설로 퇴적물 쌓여”

제주시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결과 110건 건의사항 교통·쓰레기 문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 등 제기

제주항 방파제 건설에 따른 조류의 변화로 흙·쓰레기 등이 퇴적되면서 서한두기 방파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안동우 시장이 26개 읍면동을 방문해 2021 찾아가는

소통의 날 행사를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제기한 것이다. 제주시는 18일 지역주민들과 읍면동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결과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건설분야 26건,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 문제와 쓰레기 처리난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농로 등 도로확충을 위한 건의가 가장 많았다. 또 해안가 팽생이모자반 처리에 따른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 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응당2동의 경우 제주항 방파제 설치로 인해 조류 흐름이 변하면서 서늘설토가 하류에 적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안동우 시장은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반기별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의 해결에 대한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그랜드 보청기

2021 히트브랜드 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스

국제보청기 (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